

“응, 나 고양시 청년이잖아.” 고양시 청년들을 위한 제언

글. 김태은(고양시정연구원 자문위원)



김태은
-성동구청 창업발전소장(창업컨설턴트: 누적상담 250회 돌파, 창업경험 3회)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4기 지역혁신가(2021)
-창업진흥원 시민혁신위원회 사회적기분과 위원장(2021)
-서울특별시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숙의분과 회장(2021)
-서울청년센터 성동오랑 운영 위원(2020~2021)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정책네트워크 제1기 부위원장(2020)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정책위원회 분과위원(2019)
-한양대학교 대학원 정책학과 박사과정 수료

Part 1.
어른들에게,
“어리다고 ‘놀라지’ 말아요.”

한 주민 참여 공론장 아이스브레이킹 진행자는 다섯 가지 소개문을 쓰되 하나를 거짓으로 하고 참가자들에게 이를 맞혀보게 했다. “저는 창업 경험이 세 번 있습니다”라는 ‘사실’이었는데, 참가자들은 “그 나이에 세 번 창업했다는 것은 이상하다”며 거짓이라고 선택했다. 창업진 흥원 시민사회혁신위원회 첫 미팅. 위원장 출마에 나이 제한이 없다는 말을 듣고 용기 내어 후보에 임하자 담당자님의 우려 섞인 목소리. “보통 어린 분들은 서기나 총무를 하시는데...” 경험상 사회에서는 ‘청년’을 ‘미숙하거나 어린 존재’로 보는 시선이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어 같은 해 8월 시행되었고, 자치단체들은 모법(母法)이 생기기 전부터 ‘청년 조례’를 만들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 덕분에 2021년 8월 12일을 기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청년’이라는 키워드로 검색되는 조례만 619건이며, 입법 예고된 조례도 551건이다. ‘청년’이라는 의미에 ‘절정(絶頂)’에 이른다는 뜻이 희망적이어서일까, 아니면 요즘 90년생이 온다고 하니(?) 일단 ‘청년’이라는 말을 더 쓰게 된 것일까. 이유야 어찌 되었건 청년 참여 기회가 더 많아진 것이 새삼 반갑다.

지난해에는 성동구청청년정책네트워크 제1기 부위원장으로 청년 위원님들과 함께 제안했던 청년자율예산 통과를 위해 고군분투해 제안 예산 모두 삭감 없이 지켜냈고, 올해는 민주서울 숙의분과의 회장으로 서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숙의하는 역할을 했다.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순간은 숙의분과 회의를 진행할 때였다. 다양한 세대의 위원님들이 한자리에 모이자 대부분, “왜 청년 정책에 많은 돈을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주셨다. 이를테면 ‘일자리 카페 대신 일반 카페를 가면 되지 않느냐’, ‘청년센터가 꼭 있어야 하느냐’ 등이었다. 회의 진행자로서 중립을 지켜야 했기에 위원님들에게 숙의를 촉진하는 역할에 집중했다. 결과 일부 사업들에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느낀 점은 세간의 유행하는 것처럼 세상은 아직 ‘청년’에 대해서 많이 모른다는 것이었다. 어린 시절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어린 아이인 것 같은 것은 기분 탓이었을까.

청소년·청년 대상 ‘민주주의’, ‘시민참여’ 강사로서 강연하면 “시민의

1) ‘부캐’, ‘N잡’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약 119만 개사(社)던 창업기업은 5년 사이 148만 개사로 대폭 상승했으며, 대표적인 재능공유 플랫폼 크몽의 2020년 11월 누적 거래액은 1천억 원을 돌파했다. 2018년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유튜버를 선택 호적업 10개 중 5위에 꼽을 만큼 시대는 달라지고 있다.
2) 최근 유행하는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 원리’에 따르면, 공론장 등에서 ‘위험하지 않다’고 구성원이 인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건전한 생각이 공유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

의견이 시 정책에 반영이 될까요?”라는 회의적 물음이 꼭 나온다. 학문적 용어였지만 오늘날에는 일상에서 조금씩 쓰이고 있는 ‘효능감(效能感)’ 이하다. 심리학자 반두라(Bandura)가 1977년 제시한 개념으로, 어떤 일을 할 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개인 스스로 가지는 믿음의 정도로 정의된다. 물론 정책 제안에는 행정의 언어(Language)로 말해야 한다. 그러나 최소한 참여하는 후속 세대들이 시민으로서 효능감은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 동료들과 진행한 연구에서도 ‘신뢰성’과 ‘충족성’이 있을 때 ‘참여’를 지속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고양시는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청년담당관이 계셔서 참 다행이다. 그러나 아직 다른 자치단체들은 ‘아동’과 ‘청년’을 하나로 묶거나, 혹은 ‘일자리’ 주무부서 등에서 정착수혜 대상의 일부로 청년을 치부하는 것 같다. 사회에서 청년은 조금은 어린 존재인 것 같다.

Part 2.
정책가에게,
“취·창업을 넘어선, 노마드 창작의 시대가 옵니다.”

취업 시장에서 오랜 명언(?) 중 하나. 구직자들은 “(대기업을 제외하고) 갈 회사가 없다.”고, 기업들은 “(대기업에 간 사람들을 제외하고) 뽑을 인재가 없다.”다. 구직 희망자 대부분 대기업 혹은 공무원과 공기업업을 향한다. 그것만이 인생에서의 정답이자 입신양명(立身揚名)의 길이라 여기는 사회 분위기도 한몫한 것 같다. 사회가 규정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차별이 보이지 않게 존재하고, 급여 수준에 따라서 사람을 구분하는 분위기도 여전하다. ‘열심히 노력해야만 평범하게 살아가 수 있는 오늘날 청년들에게,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기가 힘들지도 모른다. 그런데 모두가 간과(看過)하는 것은 ‘사업’이 아니라면 큰 틀에서 모두 급여 생활을 하는 근로자라는 점이다. 이 지점에서 MZ세대들은 인사이트를 찾기 시작했다. 집값이 날로 높아져 급여 수익만으로는 10년 후 ‘내 집 마련’을 기대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암호화폐’ 현상이, 젊은 세대들의 ‘주식 열풍’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금기시되던 ‘돈’이라는 낯것 그대로의 표현이 사회 전면으로 등장하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창직’을 해야 살아남는 시대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제도적으로 잘 갖춰진 창업 교육이 보다 현실적이라면, 인큐베이팅 과정에서 전담 ‘멘토’들이 창업한 경험이 있어야 할 것이다. 평생 근로자였던 사람이 큰마음 먹고 창업 전선에 뛰어들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훈육한다는 것은, ‘공감’ 부분에서 현저히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우

연과 우연히 만난 창업자조차 자신이 왜 성공했는지 모르는 사업 모델’을 일반화하는 창업 교육은 지양해야 한다. 이른바 ‘물고기를 잡는 살아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육성과 커리큘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B2C, B2B, B2G 등 형태는 달라도 결국 ‘사업’은 사람 ‘마음’을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Part 3.
청년들에게,
“미움받으면 어때요? 도전하는 청년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말이 있다. ‘좋은 게 좋다’는 우리 사회의 어쩌면 암묵적 룰일 수 있다. 이때 누군가 자신의 권리라며 주장을 하면 생각보다 불편해하는 시선을 느낄지도 모르겠다. ‘다들 꼭 참고 살아가는데 왜 저러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 수 있고, ‘괜히 책임만 지고 남들에게 미움만 받으면 어떻게 하나’ 등의 마음 때문 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유튜브 박막례 님의 “자신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춰”라는 메시지와 책 <미움받을 용기>의 ‘위로’ 덕분에 지역혁신가 사회과학자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미움받으면서 할 말을 해봤다. 물론 권리에 따르는 책임은 반드시 졌다. 그렇게 해도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았다.

우리 사회는 ‘장유유서(長幼有序)’와 ‘역할(役割)의 공존’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갈등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다. 청년들은 ‘미움 받을 용기’를 가지고, 기성세대들은 ‘그럴 수 있어’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본다면, ‘디자인씽킹’이니 ‘숙의’니 하는 어려운 말보다 나은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활동가 동료에게 물었다. “왜 참여해?” 그러자 돌아온 대답. “응, 나도 처음엔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여러 명이 문제라고 한목소리를 내니, 구조가 바뀌더라?” 당시까지 세계관을 깨부수는 계기가 되었다. 어려운 말로 슈페터(Schumpeter)가 언급한 ‘창조적 파괴(創造的破壞)’다. 무얼 하든지 자신만의 ‘박자’와 ‘장단’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발전에 공헌하는 고양시 청년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왜 참여하냐”는 물음에 이런 대답을 들으면 좋겠다.

“응, 나 고양시 청년이잖아.”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
김태은, 모은정, 양선모. (2020). 청와대 국민청원 이용자 분석: 활용 동인을 중심으로. [NIA] 정보화정책, 27(1), 92-114.
김태은, 최승인. (2019). 베스트댓글에 대한 개인의 인지가 온라인 감정전이에 미치는 영향 연구: 우리나라 암호화폐 현상을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11(1), 335-364.